

## 20세기 前半의 중국 여성작가의 賢母良妻論\*

— 陳衡哲과 冰心を 중심으로 —

金 垠 希\*\*

### <目 次>

I. 들어가면서	III. 冰心の 賢母良妻論
II. 陳衡哲의 賢母良妻論	IV. 나오면서

### I. 들어가면서

과거에 중국 여성을 억압하였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는 三從四德이라는 봉건종법사회의 사회규범이었다. 三從四德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위계적인 남성중심사상의 정점에 위치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男尊女卑를 강화하는 갖가지 봉건적 담론이 생산되었다. ‘男主外, 女主內’, ‘女子無才便是德’ 및 纏足 등이 바로 그것이다. ‘男主外, 女主內’가 남녀의 활동범위를 사회와 가정으로 이분화하여 여성을 가정이란 울타리 속에 구속하는 논리적 근거로 사용되었다면, ‘女子無才便是德’과 纏足은 여성을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로 만들어 남성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을 남성의 종속물이나 부속품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관점에 일부 변화가 나타난 것은 19세기 말의 維新志士의 주장에 의해서였다. 즉 鄭觀應은 1894년에 출판된 《盛世危言》에서 富強救國의 관점에서 정치, 경제,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과 교수

사회 각 방면의 개혁을 논하고 있는데, 이 저서의 〈女教〉에서 서양에서의 남녀 구분이 없는 교육을 들어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梁啓超는 1896년에 씌어진 〈變法通議〉 가운데의 〈論女學〉에서 ‘부녀의 배움이 실로 천하의 존망과 강약의 근원’이라고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sup>1)</sup> 이들 유신파의 여성교육론은 기본적으로 ‘女子無才便是德’이라는 女性教育無用論에서 벗어나 여성교육을 부국강병을 위한 중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여성교육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男主外, 女主內’의 논리에 의해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 제한하였던 데에서 벗어나, 여성을 국가와 민족 앞으로 호명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즉 金天翮은 1903년에 발행한 《女界鐘》에서 ‘천하의 흥망은 匹夫에게도 책임이 있고 匹婦에게도 책임이 있다.(天下興亡, 匹夫有責, 匹婦亦有責)’고 제기하면서 ‘여자는 국민의 어머니(女子者, 國民之母)’라고 주장하였다. 뒤이어 1904년 1월에 창간된 《女子世界》라는 잡지는 발간사에서 “여자는 국민의 어머니이다. 중국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자를 새롭게 해야 하고, 중국을 강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자를 강하게 해야 한다”<sup>2)</sup>고 역설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여성을 민족국가의 건설과 自強保種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을 국가와 민족의 틀 속에서 새로이 해석하려는 시도에도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鄭觀應이나 梁啓超 등의 남성 維新志士는 “능히 아들과 남편을 도와 현명한 내조를 할 수 있”<sup>3)</sup>거나 “위로는 남편을 돕고 아래로는 아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가까이로는 집안을 화목하게 하

- 
- 1) 婦學實天下存亡強弱之大原也. 梁啓超 著, 吳松 等 點校, 《飲冰室文集點校》(第一集), 雲南教育出版社, 2001, 44쪽.
  - 2) 女子者國民之母也. 欲新中國, 必新女子; 欲強中國, 必強女子, 欲文明中國, 必先文明我女子; 欲普救中國, 必先普救我女子, 無可疑也. 丁守和 主編, 《辛亥革命時期期刊介紹》, 人民出版社, 1982, 461쪽.
  - 3) 乃能佐子相夫, 爲賢內助矣. 鄭觀應 著, 辛俊玲 評注, 《鄭觀應 盛世危言》, 華夏出版社, 2002, 120쪽.

고 멀리로는 종족을 우량하게 만들 수 있”<sup>4)</sup>는 賢母賢婦의 양성을 여성교육의 목표로 제시한다. 이에 반해 《女子世界》의 일부 필진은 賢母良妻 양성을 위한 여성교육론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國民母’라는 용어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급진적인 의미를 띤 ‘女國民’의 양성을 제창하였다. 이를테면 蘇英은 蘇蘇女校의 개학식 연설에서 “훗날의 女軍人の 예비공부를 하여 한편으로 국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넓혀 애국 사상을 길러내고, 다른 한편으로 군사훈련을 중시하고 몸과 정신을 단련하여 尚武精神을 제창해야 한다”<sup>5)</sup>고 부르짖고, 柳亞子 역시 “女界에 賢母良妻를 바라느니 차라리 영웅호걸을 원한다”<sup>6)</sup>고 역설하였다. 이들은 현실의 변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女戰士로서의 여성을 새로운 여성상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과 태도는 훗날 賢母良妻論 및 여성해방운동론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거나, 특히 1910년대의 신문화운동기에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賢母良妻論이 논란의 쟁점이 되었다. 이어 1920년대 초에는 엘렌 케이(Ellen Key)의 母性論이 소개됨에 따라 모성의 보호 및 자녀 양육,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적 자립 가운데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가를 둘러싸고 賢母良妻論이 다시 논란의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와 항일전쟁기에는 ‘婦女回家’를 둘러싸고 新賢母良妻論이 제기되었는데, 가정과 사회, 가사노동과 사회활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견해가 극명하게 나뉘어졌다.<sup>7)</sup>

이처럼 賢母良妻를 둘러싼 논의가 반세기 넘게 계속되고 있는 동안, 賢

4) 上可相夫, 下可教子, 近可宜家, 遠可善種, 梁啓超 著, 앞의 책, 203쪽.

5) 蘇英의 〈蘇蘇女校開學演說〉, 《女子世界》 제12기, 張蓮波, 《中國近代婦女解放思想歷程》, 河南大學出版社, 2006, 161쪽에서 재인용.

6) 安如(柳亞子), 〈論女界之前途〉, 《女子世界》 제13기, 1905년 5월, 王晶儁 編, 《柳亞子選集》(上冊), 人民出版社, 1989, 56쪽.

7) 청말 이래 1940년대까지의 賢母良妻論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김은희의 〈清末 이래 1930년대까지의 中國의 女性 想像 - 賢母良妻論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제63집, 2013. 8. 참조.

母良妻論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여성작가로서 陳衡哲(1890~1976)과 冰心(1900~1999)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 우선 성장배경으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문화적으로 文雅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 구성원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으며, 교육면에서도 집안의 지원 속에서 근대적인 교육을 받음은 물론 미국의 대학에 유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대학 교수로서 활동하였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 미국 유학생 출신의 대학 교수와 결혼하였으며, 결혼 후에도 문필활동은 물론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유복하면서도 평탄한 생활을 보냈다.

유복한 성장과정과 평탄한 결혼생활, 그리고 엘리트 문인으로서의 대중적 인기, 사회활동가로서의 사회적 명망 등, 이 모든 것은 중국의 평범한 여성은 물론,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廬隱, 石評梅, 丁玲 등과 비교해보아도 훨씬 월등한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중국 여성이 흔히 겪었던 일상적인 여성문제로부터 비껴나 있는 듯이 보이며, 따라서 이들의 소설이나 산문에 드러나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 역시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 글에서는 陳衡哲과 冰心の 글 쓰기에 나타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賢母良妻論의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陳衡哲의 賢母良妻論

陳衡哲의 많지 않은 소설 가운데 여성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무협속의 한 여인(巫峽裏的一個女子)> <명오빠(孟哥哥)> <루이스의 문제(洛綺思的問題)> <브로우치이야기(一支扣針的古事)>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賢母良妻論과 관련이 있는 작품은 <루이스의 문제>와 <브로우치이야기>이다.<sup>8)</sup> <루이스의 문제>에서 루이스는 결혼이 가져다줄 가사노동과

8) <루이스의 문제(洛綺思的問題)>는 1924년 10월 《小說月報》 제15권 제10호

자녀양육의 부담을 염려하여 와드(瓦德)와의 혼인을 주저한다. 그녀는 영문을 모르는 와드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도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학문과 사업이 인생의 가장 좋은 반려자라고? 당신도 아시다시피 전 야심이 큰 여자예요. 제게 무슨 허영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다면 제 앞길엔 수많은 장애물이 생길 거예요.<sup>9)</sup>

그리하여 결혼과 학문 가운데에서 학문을 선택한 루이스는 끝내 와드와의 약혼을 파기하지만, 석 달 후 와드의 결혼소식에 씩씩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이제 세월은 흘러 어느덧 마흔 살이 훌쩍 넘은 루이스는 그녀가 꿈꾸었던 학문적 성취를 모두 이루었지만, 어느 날 꿈속에서 자신이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을 보고서 삶의 고독을 느낀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예? 성공? 학문과 일? 맞아, 이 모든 게 다 사랑스럽고 위대하다. 하지만 삶에서 그들의 자리는 따로 있다. 이것들은 영혼을 푸른 하늘에 닿게 해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메마름과 적막함을 적셔주지는 못한다”<sup>10)</sup>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陳衡哲이 〈루이스의 문제〉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물론 루이스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의 말미에서 “산에 만족하는 이는 호수의 평화로움을 모를 것이며, 호수의 평화로움에 만족하는 이는 산의 웅대함을 맛보지 못할 것”<sup>11)</sup>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루이스의 학문적 성취는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陳衡哲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한 삶은 결혼과 사업(이 작품의 경우에는 학문적 성취)의 조화이다.

에 발표되었고, 〈브로우치이야기(一支扣針的古事)〉는 1926년 2월 《現代評論》에 발표되었다.

9) 陳衡哲, 《小雨點》, 新月書店, 1928, 107쪽.

10) 같은 책, 127쪽.

11) 같은 책, 128쪽.

그러나 만약 결혼과 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陳衡哲은 사업보다는 결혼에 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며, 자녀의 양육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찾는다. 이를테면 〈루이스의 문제〉에서 陳衡哲은 루이스와 상반되는 인물로서 마더여사를 형상화하고 있다. 마더여사는 자녀 양육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 생각하여 자녀들을 총명하고 사랑스럽게 길러낸 여성이다. 루이스는 마더여사처럼 “모든 여자가 철저한 賢母가 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한 여자의 성격과 인생관이 마더여사와 같다면 결혼이 그녀의 삶에 방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야심과 소망을 완성시켜줄 것”<sup>12)</sup>이라고 생각한다.

결혼과 여성의 삶의 가치에 대한 陳衡哲의 고민은 〈브로우치이야기〉에서 시크부인을 통해 재현된다. 〈브로우치이야기〉는 예일대학 브로우치에 얽힌 로맨틱하면서도 플라토닉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陳衡哲은 모범적인 어머니로서 시크부인을 그려내고 있다. 시크부인은 “세상에 보기 드물 정도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母愛는 자신의 가정에만 제한되지 않아” 주위의 모든 아이들이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며, “모든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母職을 품고 있기에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녀에게 오는 젊은이들은 모두 그녀를 어머니라 부른다.”<sup>13)</sup> 시크부인의 한없는 母愛와 신분을 가리지 않는 母職에 대한 찬사는 陳衡哲의 이상적인 여성상이 상당 부분 결혼한 여성에게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브로우치이야기〉에 母愛와 함께 母職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母愛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母職은 1920년대에 접어들어 엘렌 케이(Ellen Key)의 母性論이 소개됨에 따라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엘렌 케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보다는 모

12) 같은 책, 109쪽.

13) 같은 책, 138쪽.

성, 특히 ‘영혼의 교육자’로서의 모성을 중시하였는데, 영어 motherhood의 譯語인 母職은 그 함의가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넓게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이를테면 온유, 자애, 희생과 인내 등)을 의미하는 母性을 가리키고, 좁게는 ‘여성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직무나 역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브로우치이야기〉에서 母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상적인 여성의 덕목으로서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陳衡哲이 1920년대 초반의 엘렌 케이의 모성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陳衡哲이 1926년에 발표한 〈부녀와 직업(婦女與職業)〉이라는 글에는 엘렌 케이의 모성론의 흔적이 분명하게 엿보인다. 이를테면 “집안 관리의 임무를 다른 사람의 어깨위에 넘겨줄 수도 있지만, 자녀의 훈육은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음식장만 등의 자질구레한 일과 신성한 母職은 별개의 일로서, 전자는 남이 대신할 수 있으나 후자는 절대로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하면서 ‘母職은 신성한 사업’임과 동시에 여성의 ‘가장 專制的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부녀와 직업〉이란 글에서 陳衡哲이 강조하는 전제는 두 가지이다. 즉 “여자가 결혼에 기대어 달성하는 목적은 남자가 직업에 기대어 달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과 “賢母良妻의 책임은 어느 직업에 비하더라도 결코 비천하지 않다”<sup>16)</sup>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한데 섞어 요약하자면, 결혼한 여성의 가사노동은 남성의 사회노동만큼 가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陳衡哲은 재주 있는 여성의 천재성을 발전시키고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가정으로 돌아가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교육을

14) 陳衡哲의 글 속에서 母職의 함의는 문맥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브로우치이야기〉에서는 母性의 의미에 가깝지만, 〈부녀와 직업〉에서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한다.

15) 陳衡哲, 〈婦女與職業〉, 《衡哲散文集》, 河北教育出版社, 1994, 106쪽.

16) 같은 책, 105쪽.

정돈하여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母職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母職이다. 이 말은 얼핏 보기에 완고하고 진부하기 그지없는 賢母良妻의 길로 돌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나는 이제껏 이 길을 포기한 적이 없다. 비록 나는 그것이 부녀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여자가 어머니나 아내가 되지 않으면 그만이나, 기왕에 어머니나 아내가 되었다면, 마땅히 온힘을 다해 한 사람의 賢母, 한 사람의 良妻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나는 母職은 대다수 여자의 기본직업이라고 말한다.<sup>17)</sup>

그렇다면, 陳衡哲의 작품 속의 마더여사와 시크부인은 위의 母職을 충실히 실천하는 賢母라 할 수 있으며, 〈부녀와 직업〉은 두 작품의 賢母에 대한 해설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陳衡哲이 비록 賢母良妻를 운위하고는 있지만, 어머니의 역할로서 母職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집안살림과 가사노동 외에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神聖한 母職을 수행하는 이가 賢母라고 한다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良妻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陳衡哲의 賢母良妻論은 여성의 가사노동이 사회노동만큼 가치 있다는 전제 위에서 母職에 충실한 賢母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陳衡哲의 賢母良妻論은 1930년대의 ‘婦女回家論’을 통해서 보다 분명한 색채를 보여주었다. 주지하다시피 ‘婦女回家論’은 1930년대 초에 제기된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新賢母良妻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1934년부터 1949년에 걸쳐 國民黨政府가 儒家의 윤리도덕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던 新生活運動과도 연관이 있다. 이 당시 ‘婦女回家論’을 둘러싸고

17) 같은 책, 112쪽.

벌어진 논쟁에서는 가정과 사회, 가사노동(가사활동)과 사회노동(사회활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견해가 극명하게 나뉘었다. 陳衡哲은 ‘婦女回家論’이 한창이던 당시에 두 편의 글을 남기고 있는데, 〈부녀문제의 근본에 대해(婦女問題的根本談)〉(1934년 4월)와 〈복고와 독재세력하의 부녀의 입장(復古與獨裁勢力下婦女的立場)〉(35년 7월)이 그것이다.

〈부녀문제의 근본에 대해〉에서 陳衡哲은 남녀평등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남녀평등은 여자를 남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개성과 천재를 발전시킬 기회를 남자와 평등하게 얻도록 요구하는 것”<sup>18)</sup>이라고 밝힌다. 여기에서의 ‘개성’은, 〈복고와 독재세력하의 부녀의 입장〉에 따르면 “母職과 같은 여성의 특수한 임무와 관련된” 특성, 다시 말해 생물학적 여성으로서의 특성에 대비되는, 개별적 인간의 특성을 가리킨다.<sup>19)</sup> 이러한 개성을 발전시킬 남자와의 평등한 기회를 요구하면서, 陳衡哲은 여성의 개성과 노동형태(가사활동인가, 사회활동인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여자가 기계에 대해 천부적 재능을 지니고 있다면, 기술이 남자의 전통적인 직업이라는 이유로 여자가 배우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만약 여자의 재능이 집안살림과 육아에 있다면, 女權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여자가 賢母良妻가 되려는 것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역대의 정황은 여자에게 賢母良妻가 될 기회만을 주었을 뿐, 기술자가 될 기회는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을 품고 기회의 평등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sup>20)</sup>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陳衡哲은 기술자의 자질과 마찬가지로 賢母良妻의 자질 또한 개성, 즉 개별적 인간의 특성으로 간주한다. 각자의 타고난 재능을 발전시켜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평등의 진수라고 한

18) 같은 책, 〈婦女問題的根本談〉, 132쪽.

19) 같은 책, 〈復古與獨裁勢力下婦女的立場〉, 69쪽 참조. 陳衡哲은 이 두 가지 특성을 ‘個性과 女性’이라 일컫고 있다.

20) 같은 책, 〈婦女問題的根本談〉, 133쪽.

다면, 여성이 자신의 賢母良妻의 자질을 발전시켜 賢母良妻가 되는 것 역시 기회의 평등을 누린 결과이다. 다시 말해 陳衡哲에 따르면, 賢母良妻가 되든 기술자가 되든, 달리 말해 가사활동을 하든 사회활동을 하든, 여성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킨 결과이기만 하다면, 이것은 결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陳衡哲이 〈부녀와 직업〉에서 여성의 가사노동과 남성의 사회노동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였다면, 〈부녀문제의 근본에 대해〉에서는 개성의 발전에 따라 여성이 가사활동이든 사회활동이든 모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陳衡哲은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에 참여케 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 “여자의 母性과 여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면서 “책임감이 강한 여자는 쉽사리 자신의 자녀를 완전히 타인에게 맡겨 교양케 하지 않으려 한다”<sup>21)</sup>고 母職의 수행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여준다.

당시 ‘婦女回家論’에서는 가정과 사회, 가사활동과 사회활동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경향이 강했는데, 陳衡哲은 가사활동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자라면 반드시 사회에서 복무하여야 양심에 부끄럽지 않지만, 동시에 여자의 가정살림과 육아에도 찬동한다”면서, 가정과 사회에 대해 모두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 낭비일 뿐만 아니라 비극이라고 여긴다.<sup>22)</sup> 비록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자’라는 전제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陳衡哲은 가사활동과 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절충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복고와 독재세력하의 부녀의 입장〉에서 보다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현 사회의 상황 하에서, 우리는 모든 여자가 가정에서 나와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지식 있는 여자가 가정을 나와서는 안 된

21) 같은 책, 137쪽.

22) 같은 책, 138쪽.

다'는 논조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여자가 가정에서 나온다면 아이들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고, 지식 있는 여자를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는 천재성 있는 여자의 공헌을 상실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sup>23)</sup>

결국 陳衡哲이 위의 세 편의 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첫째 여성의 가사노동(혹은 가사활동)은 남성의 사회노동(혹은 사회활동)만큼 가치 있는 직업이며, 둘째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賢母良妻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母職이며, 셋째 여성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 가사활동이든 사회활동이든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자' 혹은 '지식 있는 여자'는 가사활동과 사회활동을 병행하여도 좋다는 것이다. 이처럼 陳衡哲의 賢母良妻論은 지식여성 중심의 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받지 못한 여성'이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sup>24)</sup>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그녀의 賢母良妻論은 부르주아지 여성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Ⅲ. 冰心の 賢母良妻論

1948년 6월 일본 학자 구라이시 다케시로(倉石武四郎)의 초청으로 일본에 건너간 冰心은 東京大學에서 행한 강연에서 “중국의 부녀운동 가운데에 ‘賢母良妻 타도’라는 표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우리는 賢母良妻를 원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동시에 賢父良夫 또한 원한다. 賢과 良이 어느 한쪽만의 의무여서는 안 되기 때문”<sup>25)</sup>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위

23) 같은 책, 〈復古與獨裁勢力下婦女的立場〉, 72쪽.

24) 陳衡哲의 賢母良妻論이 지닌 지식여성 중심의 특징은 그녀의 소설 〈루이스의 문제〉나 〈브로우치이야기〉의 인물형상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

25) 冰心, 〈怎樣欣賞中國文學〉, 《冰心全集(第三卷)》, 海峽文藝出版社, 1999, 480쪽.

의 글에서 冰心이 ‘賢母良妻 타도’라는 표어에 대해 심경이 썩 편치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冰心은 1941년에 썼던 〈여인에 관하여(關於女人)〉 가운데의 하나인 〈나의 어머니(我的母親)〉에서 위와 유사한 내용을 쓰기도 하였다.

부녀운동의 각종 표어에 대해 나는 모두 동의하지만, 다만 ‘현치양모 타도’라는 구호를 보거나 들을 때면 늘 귀와 눈에 거슬리는 느낌이 든다. 물론 사람들 마음속의 ‘아내’와 ‘어머니’는 각기 다르며, 관념 역시 이에 따라 다를 것이다. 나는 그들이 타도하고자 하는 것이 怯弱하고 弱體인 軟體動物이지, 나의 어머니와 같은 여인이 아니기를 바란다.<sup>26)</sup>

위의 글에서 적어도 冰心이 賢母良妻를 오랫동안 옹호하고 지지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사실 冰心은 자신의 첫 작품인 〈두 가정(兩個家庭)〉(1919년 9월)에서 이상적인 신여성상으로서 亞茜라는 賢母良妻를 형상화했다. 冰心은 賢母良妻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득하기 위해 신여성 亞茜와 구여성 陳夫人을 대비시킨다. 陳夫人은 ‘나’의 눈에 “용모는 그런대로 예쁘긴 했지만 까탈스럽고 게을러 보이”고, ‘외숙모’의 눈에는 “나이가 어려 놀기 좋아하니 집안일에 자연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남편인 陳先生의 눈에는 “가정부주답지 않게 하루종일 집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몇 번 타 일러보았는데 듣기는커녕 한술 더 떠 ‘女權을 존중하지 않는다’느니 ‘불평등’이라느니 ‘간섭한다’느니 하면서 오해나 하”는 여성이다.<sup>27)</sup> 이에 반해, 亞茜는 자녀 양육에 절도가 있어 예의바른 아이로 키우고 가정부에게도 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남편을 도와 외국어 원서를 번역하기도 한다. ‘나’의 어머니는 亞茜를 이렇게 평한다.

亞茜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야무져.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자기 손으로

26) 같은 책, 195쪽.

27) 같은 책(第一卷), 15-17쪽.

직접 하려고 하니, 내 보기에 그 애는 정말 정신없이 바빠. 그렇지만 여태껏 그 애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모습이나 피곤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언제나 웃는 얼굴에 즐겁다는 듯 조용히 일을 해치우더구나. 정말 하는 것이 너무 이빠.<sup>28)</sup>

자녀를 양육하고 하녀를 관리하고 집안살림을 담당하고 남편을 보조하는 데 있어서 陳夫人과 亞茜는 극단적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冰心은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정의 행복과 고통이 남자의 건설사업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좀 더 확장하여 말하자면 ‘가정과 국가의 관계’<sup>29)</sup>를 보여주고자 했다. 물론 이 작품은 부부의 관계가 봉건적 위계가 아니라 평등하다는 점, 그리고 ‘女子無才便是德’이라는 봉건적 여성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문제의 본질에서 바라본다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즉 이 작품에서 부부의 조화로운 협력으로 묘사되는 亞茜의 번역활동이 남편의 구술을 받아 적는 것에 지나지 않듯이, 아내는 남편을 돕는 조력자에 불과하다. 아울러 陳先生이 자녀양육이나 가사관리에 대해 불만만 털어놓을 뿐 전혀 간여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는 ‘男主外, 女主內’의 봉건적 남녀관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진선생의 죽음과 가정의 파탄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머니는 “결국 그녀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탓이야.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립할 수 있었을 텐데.”<sup>30)</sup>라고 말하는데, 이에 亞茜와 같은 賢母良妻는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冰心の 賢母良妻는 지난날 維新志士가 女學을 통해 양성하고자 했던 ‘相夫教子’의 賢母良妻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28) 같은 책, 17-18쪽.

29) 같은 책, 11쪽.

30) 같은 책, 19쪽.

31) 冰心은 〈나의 문학생활(我的文學生活)〉에서 “은 식구가 北京으로 이주한 후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구독하던 《婦女雜誌》나 《小說月報》 등을 읽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冰心이 《婦女雜誌》에서

실제로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冰心の 관점은 주로 지식여성을, 그리고 〈두 가정〉을 발표하던 당시의 19살 여학생 신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그녀의 다른 작품, 이를테면 〈장홍의 누나(莊鴻의姉姊)〉나 〈최후의 안식(最後的安息)〉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 冰心은 여성문제의 본질을 여성교육으로 환원시켜버린다. 이러한 계몽적인 시각을 잘 보여주는 글이 바로 〈두 가정〉보다 2주일 전에 《晨報》에 발표된 〈파괴와 건설시대〉의 여학생(‘破壞和建設時代’的女學生)(1919.9.4)이다. 이 글에서 冰心은 여학생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크게 세 시기, 즉 ‘여학생을 숭배하던 시기’, ‘여학생을 혐오하는 시기’와 ‘새로운 제3기’로 나누고, 새로운 여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해 ‘자기 수양의 공부’를 강조하면서 10가지 조목의 생활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冰心이 여학생을 질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남성중심주의나 봉건적 사회규범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여학생에게서 문제를 추궁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두 가정〉에는 가정과 사회, 가사활동(가사노동)과 사회활동(사회노동) 사이의 모순과 갈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작가 자신이 사회적 경험이 미천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의 여학생이기에 기혼 여성의 내밀한 상처와 욕망을 내재화할 기회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亞茜에게 있어서 가정은 사회와 완전한 합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사회는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역으로서, 그것은 남편의 영역일 뿐이었다. 따라서 亞茜가 느끼는 가정과 사회의 완전한 합일과 조화라는 것도 남편의 존재를 통해서만 가능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冰心이 가정 내의 여성이 아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고민과 아픔에 눈을 돌리게 된

주도하던 賢母良妻論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보고, 신여성 亞茜는 《婦女雜誌》 1916년 제1호에 실린 〈이십세기의 신여자(二十世紀之新女子)〉라는 글에 소개된 梅女士와 흡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王蘇婷, 〈冰心的自我認同研究--1919~1951年冰心的人生與創作〉, 蘇州大學碩士論文, 2011年 참조.

것은 훨씬 후, 즉 그녀가 결혼한 이후였다. 이러한 여성을 형상화한 작품이 바로 <사진(相片)>(1934년)과 <서풍(西風)>(1936년)이며, 이 두 작품을 통해 적어도 여학생 冰心이 바라본 賢母良妻에서 벗어나 기혼여성 冰心の 눈높이를 가늠해볼 수 있다.

<사진>속의 施女士는 스물다섯 살에 중국의 미션계 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후 벌써 28년이나 중국에서 지내온 독신녀이다. 젊었을 적의 그녀는 많은 사람의 숭배와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흐르는 세월 속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무덤덤한 생활을 보내던 중 자신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던 王선생이 십년 전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의 딸 淑貞을 거둬들인다. 施女士의 보살핌 속에서 淑貞은 내성적이고 침착하며 수줍음 많은 모범생으로 성장한다. 施女士는 자신을 따르는 淑貞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한없는 위안과 만족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淑貞이 결혼하는 상상만으로도 공포와 고독을 느낀다. 施女士와 함께 미국에 간 淑貞은 그곳의 목사 아들인 李天賜와 청년들을 만나면서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이는데, 施女士는 십여 년 동안 한번도 보지 못했던 淑貞의 변화된 사진 속 모습에 가벼운 소름과 함께 놀람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걱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한편 <서풍>속의 秋心은 10년 전에 遠의 청혼을 거절한 채 학문의 길에 매진해왔다. “비록 遠에게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창창한 앞날을 생각하면, 최근 몇 년간 받아온 교육과 훈련을 다 내팽개치고 溫柔한 아내 노릇을 한다는 게 달갑지 않게 느껴졌기”<sup>32)</sup> 때문이었다. 秋心은 ‘여자의 두 가지 큰 문제 - 직업과 결혼’이라는 강의를 위해 上海에 가던 길에 遠과 재회하여 여행을 함께 한다. 자신의 초췌한 독신생활과 달리, 秋心은 그의 혈색 좋고 단정한 모습을 보고 화목한 가족생활을 들으면서 후회와 자기연민에 빠져들어 이렇게 중얼거린다.

32) 같은 책(第三卷), 147쪽.

무엇이 광명의 길일까? 진정으로 광명의 길을 가는 것도 가정주부로 사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어제는 원대하고 즐거운 광명의 길로 가고 있는 듯이 보였는데, 오늘은 어찌면 너를 환멸과 어둠으로 걸어가도록 이끌지도 몰라. …… 십 년 전에는 광명의 길로 보였는데, 십 년 후에는……<sup>33)</sup>

〈사진〉의 施女士와 〈서풍〉의 秋心은 모두 자신의 사업, 즉 교육과 학문을 위해 결혼을 포기한 독신여성이다. 〈사진〉이 딸과 같은 존재인 淑貞에 대해 느끼는 施女士의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면, 〈서풍〉은 옛 연인을 바라보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秋心의 심리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淑貞이 施女士의 독신생활에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존재라면, 遠은 秋心의 사업(학문의 길)의 성공을 확인해줄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 그러나 淑貞이 생기발랄한 젊은이로 성장할수록 施女士의 불안감은 증폭되며, 遠을 바라볼수록 秋心의 사업상의 성공은 왜소하고 초라해지지만 한다. 이 두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冰心이 여성의 삶을 가정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 양쪽에 놓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冰心이 가정과 사회, 가사노동과 사회활동을 똑같이 중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위의 두 작품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독신여성의 삶의 적막과 무료함을 보여주고 있듯이, 冰心은 여전히 가정과 賢母良妻를 중시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여성에게 찬사를 바쳤던 글이 ‘여인에 관하여(關於女人)’라는 연재물이다. 冰心은 1940년 겨울 중일전쟁을 피해 重慶에 도착하여 이듬해 1월부터 12월까지 《星期評論》에 男士라는 필명으로 〈여인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9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 잡지가 정간되자 1943년 봄에 天地出版社에서 이 글을 묶어 출판하겠다고 하여, 다시 7편의 글을 추가로 써서 《여인에 관하여》라는 책이 천지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모두 14명의 여인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상에 만약 여자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모

33) 같은 책, 153쪽.

를 일이다. 내가 상상하기에, 세상에 만약 여자가 없다면 이 세상은 적어도 5/10의 진실함(眞)과 6/10의 착함(善)과 7/10의 아름다움(美)을 잃어버렸을 것<sup>34)</sup>이라는 관점에서 각계각층의 여성의 다양한 삶을 기술하고 있다.

이 14명의 여인 가운데에는 큰일부터 작은 일까지 도맡아 척척 처리하는 능수능란한 제수(〈叫我老頭子的弟婦〉), 예쁘고 온화하지만 강의할 때에는 엄숙하고도 분명한 T여사(〈我的教師〉), 동그란 얼굴에 가무잡잡한 피부, 납작한 코를 지닌 시골 사람이지만 주인집에 대한 충성심과 반일의식이 강한 유모(〈我的奶娘〉), 언행이 시원시원하고 남녀평등에 대해서도 진보적이며 중일전쟁 발발 후 종군하여 힘차게 분투하던 L누나(〈我的同班〉), 아름답고 시원스러운 모습에 누구에게나 상냥하면서도 겸손하던 선배 C여사(〈我的同學〉), 장식으로 꾸미지 않아도 우아하면서도 문학에 대해 교양이 깊은 L부인(〈我的朋友的太太〉),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나며 매사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S(〈我的學生〉),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지만 결혼 후 경제적 궁핍에 찌들려 시들어가는 M부인(〈我的隣居〉), 하루 종일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생활력 강한 시골 아낙 張어멈(〈張嫂〉) 등이 등장한다. 이들 가운데에서 冰心은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賢母良妻의 전형으로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어머니는 현대적 두뇌를 가지셔서 현대의 모든 것을 온화하고 공평하게 받아들이신다. 어머니는 ‘집’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가정이 모든 행복과 역량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신다. ……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 살림을 하는 외에 책을 보지 않으면 일을 하시며, 조용하여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신다. …… 그녀는 전형적인 현처양모이다. 적어도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賢妻良母를 설명할 때 그녀가 생각하는 賢妻良母란 마땅히 남편과 자식의 보호자이었다.<sup>35)</sup>

34) 같은 책, 306쪽.

35) 같은 책, 193-195쪽.

冰心에게 있어서 賢母良妻란 전통 여성이 지니고 있는 勤勉과 賢淑, 慈愛와 희생으로 남편과 자식을 보살피는 외에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적 능력의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여성이다. 冰心の 이러한 賢母良妻像이 다시 한 번 명확히 드러난 것은 1942년 1월 《婦女新運》에 발표된 〈심려영 여사를 추모하며(悼沈驪英女士)〉라는 글이다. 沈驪英(1897~1941)은 미국 웨슬리언대학(Wesleyan College)에서 식물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小麥 신품종 개발에 업적을 남기는 등 중국의 농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안타깝게도 44세에 돌발성 뇌중풍으로 실혈실에서 세상을 떠났다. 冰心은 위의 추모사에서 “沈驪英은 직업과 혼인이 어그러짐 없이 병행될 수 있기를 바랐”으며 “즐거운 가정과 마음에 맞는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여 모든 바람을 이루었다고 회고하면서, “여성 과학자 가운데에서도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도록 돕는 일을 첫째로 삼고, 아이들을 교양하여 성인으로 길러내는 것을 둘째로 삼고, 자신의 사업의 성공을 셋째로 삼는’ 그런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sup>36)</sup>라고 극찬하고 있다. 冰心이 보기에, 자신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沈驪英 역시 相夫教子の 덕목과 自己啓發의 능력을 두루 갖춘 賢母良妻였던 것이다.

〈여인에 관하여〉에서 나타나듯이 賢母良妻가 비록 여성의 자아실현의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冰心에게 있어서 賢母良妻는 〈두 가정〉을 발표한 이래 여전히 이상적인 여성상이었으며, 그 본보기는 자신의 어머니였다. 그렇지만 賢母良妻로서의 가정주부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冰心은 〈無家樂〉(1946년 10월)에서 형상적으로 보여준다. 즉 冰心은 “비가 내리거나 비온 뒷날이면 늘 달팽이가 말랑말랑한 몸을 끌고서 딱딱하고 축축한 흙담위를 기어가는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주부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이어 冰心은 “부드럽고도 겁이 많은” “달팽이의 몸은 늘 다짜고짜 안으로 파고 들어가 편안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 두툼한 껍질을 필요로 한다. 이 두툼한 껍질이 바로 부모와 자녀, 그리고 기름병과 소금단지로 이

36) 같은 책(第三卷), 221-222쪽.

루어진 무겁고도 복잡한 집이다! 하지만 결국, 편안하고 따뜻하게 쉬는 시간은 짧고 이 두툼한 껍질을 등에 진 채 이를 악물고 꿈틀거리는 때가 훨씬 많다!”고 달팽이를 빌려 주부의 고단한 삶을 비유하고 있다.<sup>37)</sup> 賢母良妻로서의 가정주부에 대한 冰心의 인식이 한층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 IV. 나오면서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에서 賢母良妻라는 成語가 생겨난 것은 19세기 말 근대국가의 건설을 모색하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를 맞본 이후 근대중국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식인은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인 賢母良妻 사상을 전통적인 의미의 ‘賢妻’ ‘賢婦’와 결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만들어냈다. 이후 1910년대의 신문화운동, 30년대의 신생활운동 등을 거치면서 賢母良妻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담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각 시대마다의 賢母良妻는 중국의 지식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문화적 욕망을 투사하여 만들어낸 관념적 理想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전반, 특히 5·4 신문화운동기에는 여성작가들이 대거 문단에 진출하였다. 이들 여성작가 가운데 賢母良妻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賢母良妻主義를 선양했던 이로 陳衡哲과 冰心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복한 성장배경이나 평탄한 결혼생활 등에서 동시대의 다른 여성작가들과는 사뭇 다른 행운을 누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賢母良妻를 주장하고 선양했던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영위했던 안정된 삶의 경험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과 달리 불우한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을 겪었던 여성작가들, 이를테면 廬隱이나 石評梅의 경우 결혼과 가정을 다룬 작품들은 대부분 삶의 무의미함과 출로를 찾을 수 없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다.

37) 같은 책, 382쪽.

陳衡哲와 冰心の 賢母良妻論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賢母良妻論이 제기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즉 陳衡哲은 “여자는 한 가정의 중심이며, 가정은 또한 국가와 민족의 중심이다. 한 가정의 수준은 가정의 주부를 뛰어넘을 수 없으며, 한 국가와 민족의 수준은 그 가정을 뛰어넘을 수 없다”<sup>38)</sup>고 주장하며, 冰心은 <두 가정>의 첫머리와 卍트머리에서 ‘가정과 국가의 관계’라는 ‘李博士’의 강연을 굳이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는 陳衡哲과 冰心 두 사람 모두 清末民初에 민족국가의 건설과 自強保種을 위해 여성을 국가와 민족 앞으로 호명했던 維新志士의 외침에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陳衡哲의 賢母良妻論은 소설에서는 <루이스의 문제(洛綺思的問題)>, <브로우치이야기(一支扣針的古事)>을 통해, 잡문에서는 <부녀와 직업(婦女與職業)>, <부녀문제의 근본에 대해(婦女問題的根本談)>와 <복고와 독재세력하의 부녀의 입장(復古與獨裁勢力下婦女的立場)>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글에서 陳衡哲은 여성의 가사노동이 사회노동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타고난 재능에 따라 가사활동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母職에 충실한 賢母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冰心の 賢母良妻論은 소설로는 <두 가정(兩個家庭)>, <사진(相片)>과 <서풍(西風)>을 통해, 잡문으로는 <파괴와 건설시대’의 여학생(‘破壞和建設時代’的女學生)>, <여인에 관하여(關於女人)>, <심려영 여사를 추모하며(悼沈麗英女士)>, <無家樂>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冰心은 시종일관 가정과 賢母良妻를 중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이상적인 賢母良妻로 간주하고 있다. 冰心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賢母良妻는 勤勉과 賢淑, 慈愛와 희생 등의 전통적 미덕을 갖추고 지적 능력의 개발에 게으르지 않는 여성이다. 다만 賢母良妻만이 여성의 자아실현의 유일한 길인 듯이 여기던 창작 초기의 한계에서 벗어나 점차

38) 陳衡哲, <復古與獨裁勢力下婦女的立場>, 《衡哲散文集》, 앞의 책, 74-75쪽.

여성의 다양한 삶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陳衡哲과 冰心の 賢母良妻論은 새로운 여성관 및 부부관을 창출하여 과거의 男尊女卑의 남녀관을 극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陳衡哲은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에 남성의 사회노동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가정주부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였으며, 冰心은 비록 남편의 보조적 지위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평등한 부부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가정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들의 賢母良妻論은 기본적으로 교육받은 지식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여성교육을 여성문제 해결의 주요한 해결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가 단절되어 있거나 사회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賢母良妻의 수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여성들은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사람의 賢母良妻論은 관념적 여성론, 부르주아적 여성론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 <References>

- Chen Hengzhe, *Raindrop*, Shanghai: Crescent Publisher, 1928
- Bing Xin, *The Complete Works of Bing Xin*, Strait Literary Publisher, 1999
- Liang Qichao, *The Collected Works of Yinbingshi*, Kunming: Yunnan Education Publisher, 2001
- Zheng Guanying, *Prosper Age and Critical Words*, Beijing, Huaxia Publisher, 2002
- Wang Jingyao, *The Selected Works of Liu Yazi*, Beijing, Renmin Publisher, 1989
- Wang Xiutian, *Feministic Discourse of Good wife and Wise Mother early in 2000*, Journal of Shijiazhuang University, 2008.7.

- Liu Chuanxia, *On Bing xin's 'New Understanding Wives and Loving Mother's and its Construction*, Research on Literature and Art, 2013-1
- Liu Yanhong, *Women's Liberation and Good wife and Wise Mother*, Journal of Yangzhou University, 2007.7.
- Pan Yan, *A Modern Edition of Good wife and Wise Mother*, Journal of Suzhou Railway Teachers College, 2001.12.
- Wang Fengxian, *A Study on Good wife and Wise Mother as a Social Gender Discourse*, Journal of Shanxi Teachers University, 2000.1.
- Ma Meiai, *A New Implication of Good wife and Wise Mother under Women writers' Works*, Journal of Zhanjiang Normal College, 2004.8.
- Sui Qianyu, *Motherhood of Chen Hengzhe and its Origin of East-West Culture*, Culture and History Vision, 2009.8.
- Xia Yixue, *Dilemma in the Role and Breakthrough Strategy of Women Intellectuals: Taking Chen Heng-zhe, Yuan Chang-ying, Lin Hui-yin as Examples*, Collection of Women's Studies, 2010.7.
- Liu Zhao, *The Cultural Change of 'Good wife and Wise Mother' and its realistic Pursuit*, Dongjiang Journal, 2004.4.
- Kim Eun Hee, *The Imagination of women from the late of Qing dynasty to the 1930s in China - focused on the Theory of Good wife and Wise Mother*,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013.8.
- Cheon Seong Lim, *Discussion on Motherhood and Recognition of Protecting Motherhood by Chinese Intellectuals in the 1920s · 1930s*, Chinese History Studies, 2003.6.

### < Abstract >

Among the women writers who started their literary career in the New Culture Movement, Chen Heng-zhe(陳衡哲) and Bing Xin(冰心) are the representative women who embodied 'Good wife and Wise mother' and asserted the theory of 'Good wife and Wise mother'. These two women were influenced by the patriot of reformation who stressed the woman's active role in the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in the last day of Qing(清). Chen Heng-zhe asserted that women's housekeeping labor has the same value as man's social labor and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women is to nurture child and perform the role of wise mother, while Bing Xin put stress on home and 'Good wife and Wise mother' consistently and regarded her mother as an ideal 'Good wife and Wise mother'. Bing Xin's ideal 'Good wife and Wise mother' is the woman who not only has traditional virtue such as diligence, affection and sacrifice, but also is not lazy in developing oneself.

Key Words : 현모양처(Good wife and Wise mother), 현모양처론(Theory of Good wife and Wise mother), 여성해방운동(Feminism), 母性(motherliness), 母職(Motherhood), 陳衡哲(Chen heng-zhe), 冰心(Bing xin)

